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FY08 모집채널 생산성, 설계사 하락 - 대리점 상승

- 금감원에 따르면 FY08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 등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에서 모집조직 규모는 전년대비 확대되었으나 보험설계사 정착률, 보험계약 유지율 등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
 - 09.3월말 전속보험설계사 수는 22만 4천명으로 08.3월말 21만 6천명보다 4.0% 늘어났으며, 보험대리점은 10.6% 상승한 5만 9,100개를 기록함.
- 보험설계사의 정착률은 FY05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, 최근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설계사 영입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대비 2.2%p 감소한 39.8%를 나타냄.
 -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신규 등록 설계사 중 일정기간(1년)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인 보험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설계사의 비율을 말하며, FY05 37.8%에서 FY07 42.0%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왔음.
- 설계사와 대리점 생산성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이 286만원, 월평균 모집액은 2,232만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, 주식시장 악화 등에 따라 전년대비 생보사의 판매실적은 감소하였음.
 - 반면, 보험대리점의 경우 법인대리점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690만원, 월평균 모집액은 4,159만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각각 11.4%, 4.1% 상승함.
- 한편, FY08 보험계약 유지율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, 보험회사 자체의 완전판매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실효해약이 증가(13회차 78.2%, 25회차 66.7%)한 것으로 나타남.
- 이에 금감원은 모집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비대면 채널의 허위·과장광고 근절을 통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방침임.

(FY08 보험회사 판매채널 현황 및 효율 분석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보험영업감독팀, 8/18)